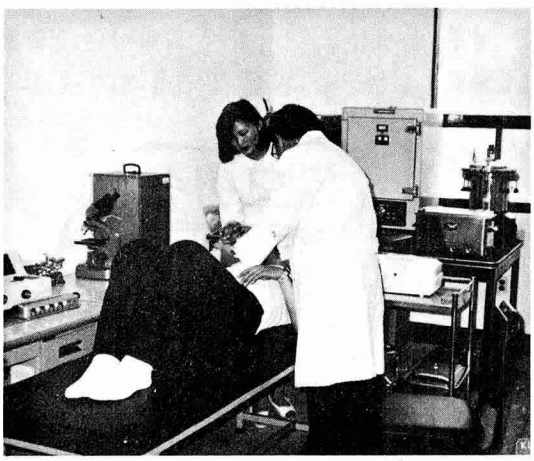
지부를 찾아서 동해센타편

소 재 지 : 경남울산시신정동 663-7(신정빌딩 2층)
센타소장 : 의학박사 이 문 기

관할지역

○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 (현대중공업 제외)

○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 (포항제철 제외)



동해센타 소장 (이문기)
근로자 정기건강진단광경

설립배경

동 지역은 '84년도까지만 해도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에서 울산지역을, 대구산업보건센타에서 포항지역을 장거리 원정 검진함으로써 직업병 사후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지도와 보건관리 업무지원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보건사업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이는 정부의 지역권 설정취지에 따른 특수검진기관의 책임검진제 확립에도 배치되어 '84년 10월 특수검진기술협의회에서 동지역에 산업보건전문기관을 설립 전담하도록 정부에 건의되어 '85.3.22 동해산업보건센타가 발족되었다.

지역특성

당 관내는 국내최대규모의 제철 및 중화학공업지대로서 포항, 울산, 온산, 양산 등 4개공단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람지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경남 양산군에서 경북울진군까지 3개 시, 7개 군, 69개 면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해의 2/3를 접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업장이 센타를 기점으로 약 60 ㎞ 이내에 산재되어 있고 관내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 사업장수는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1,665개소에 227,123명이다.(50인이상 530개소에 206,500명)

사업환경

업종별로는 중화학을 비롯하여 제1차 금속제품, 기계장비, 음식료제조업, 방적 등 다양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모로 볼때 비교적 타지역보다는 영세사업장이 적

은 편이다.

또한, 이 지역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은 편이며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도 실적을 보면 검진대상자중 수진율이 약 91%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추진방향

○ 당 센타는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사업장 특성을 감안할 때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지도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따른 인력 및 장비, 화학분석실등을 년내에 보강할 계획이며

○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관계기관은 물론 기업주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서 집단보건관리가 추진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보건발전을 위하여 동 지역내의 의료기관 및 보건관계자와 보다 조직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명실공히 정부, 기업, 근로자, 전문기관 등이 협력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전직원과 함께 매진할 것이다.

끝으로, 당 센타의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노동부 울산 및 포항지방사무소장을 비롯하여 근로감독관 여러분께 이난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울산소재 東岡의료재단 朴永哲 理事長님의 지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협회소식 ◈

부 음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규상 회장 모친께서 '85.5.26 16:00 서울 종로구 가회동 1의33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별세하였다.

발인은 '85.5.28 가회동 천주교 성당에서 영결미사 후 경기도 금곡 소재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음.

인사위원회 및 사무국장회의 개최

당협회 정관, 직제, 인사,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 재조정을 위해 '85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최병수 업무이사(인사위원장)의 주재로 '85.5.28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전직원에 대한 인사평정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재임명이 '85.6.1부로 인사발령 되었다.

한편 동 인사위원회에 이어 제4차 전국 사무국장회의를 개최 지부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지역기관과의 협력관계등 산업보건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협의가 광범위하게 토의되었다.

전국 이사회 개최

'85년도 제2차 전국 이사회가 '85.5.24 반포 소재 가야성에서 긴급 소집되어 최근 노동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토의가 있었는 바, 금번 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동 이사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내정부 건의문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음.